만들기보다 먼저 맞추기

AI로 공모전 규격과 접수 증빙을 연결한 실제 경험

적용 기간 2026년 9월 28~29일 · 생활 속 AI 활용 · 취미·창작 활동

어떤 상황에서 활용했나요?

2026년 9월 28~29일, 여러 AI 공모전의 준비와 접수를 진행하면서 Codex를 활용했습니다. Google Drive의 마감 목록을 출발점으로, 가능한 작품을 만들고 각 공모전 폴더에 원본과 매뉴얼을 보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핵심 요청은 요강을 먼저 읽고 제작 계획을 세우며, 제가 직접 해야 하는 인증과 정보 확인을 마지막에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진행 기록에 근거한 경험이며 모든 공모전의 접수가 끝났다는 보고는 아닙니다.

어떤 AI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Codex/OpenAI로 공모전 목록과 공식 요강을 대조하고 문안·제안서·도형 및 편집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일부 작품에는 Open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썼습니다. 영상은 전용 영상 생성 모델에만 의존하지 않고 장면 이미지, 한글 자막, 이동·확대·전환, 코드로 새로 합성한 음악을 결합했습니다. Python·FFmpeg·ReportLab은 제작과 검증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도구별 역할을 구분해 이미지 모델을 쓰지 않은 작품에 이미지 생성 AI를 사용했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결과물 하나만 받는 방식에서 공모전별로 요강, 제출물, 제작 원본, 검수 기록, 매뉴얼, 접수 상태를 함께 남기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상의 실제 길이와 해상도, 문서의 페이지 수와 줄 넘침, 제안서 시제품의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9월 29일 현재 6개 공모전에서 참가 신청 또는 작품 접수 단계의 완료를 확인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제가 직접 최종 제출했고, 2건은 참가 신청 단계라 모델 개발·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수상 실적이 아니며 심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반복할 수 있는 방식과 남은 문제

제가 정한 방식과 실제로 발견한 오류

처음에 “요강을 읽고 계획부터”, “공모전 이름별 폴더”, “원본과 매뉴얼”, “제게 필요한 요청은 한 번에”라는 조건을 함께 주었습니다. 이후 재사용할 참가자정보 엑셀을 채워 반복 입력을 줄이고, 이미 로그인된 계정이 다르면 그 차이를 폴더에 남기도록 정했습니다. 비밀번호나 상세 개인정보는 이 공개 사례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검토에서는 대회 종료일과 파일 제출 마감일이 다른 경우를 찾았고, 그린리모델링의 다른 부문에 적용되는 SNS 게시 의무를 AI 영화제에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바로잡았습니다. 저작권 카드뉴스에는 일반적인 AI 표시와 별개로 공고가 요구한 정확한 안내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따라 할 수 있는 절차

① 공식 요강에서 자격·마감·규격·AI 허용 범위·서식·서명·게시 유지 조건을 표로 만듭니다. ② 제작 전에 모든 필수 제출 파일을 목록으로 확정합니다. ③ 공모전별 폴더에 원본과 AI 활용 기록을 남깁니다. ④ 영상 재생·파일 규격·문서 렌더링·작동 시험을 수행합니다. ⑤ 참가자 정보와 실제 기여를 대조합니다. ⑥ 제출 후 성공 화면이나 보낸메일·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 파일을 첨부했거나 버튼을 누른 것만으로 완료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재사용할 요청문

“아래 공모전 요강을 먼저 읽고, 자격·마감·파일 규격·필수 서식·AI 허용 범위를 표로 정리해 주세요. 필요한 작품과 원본·매뉴얼을 공모전별 폴더에 보관하고, 실제 수행한 검수 결과만 기록해 주세요. 준비 완료와 제출 완료를 나누고, 제출 증빙이 없는 건은 미완료로 남겨 주세요. 제가 직접 해야 하는 서명·인증·사실 확인은 마지막에 한 번에 알려 주세요.” 이 문장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재사용용 요청문이며, 처음 입력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한계와 다음 개선

절감 시간, 생산성 증가율, 수상 가능성은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양식을 뒤늦게 확보하거나 필수 표기를 발견해 재작성한 경우도 있었고, 사이트 응답 문제와 실제 생성 화면 캡처·서명 때문에 남은 접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초 요강 대조표에 실제 신청 화면의 필수 항목까지 포함해 이런 재작업을 줄이려 합니다. AI가 한 기획·문안·코딩을 제가 모두 직접 수행했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역할은 목표·제약 설정, 정보 제공, 수정 요청, 일부 인증과 최종 제출이었고, 내용 작성·제작·검증 작업에는 AI가 관여했습니다.